

3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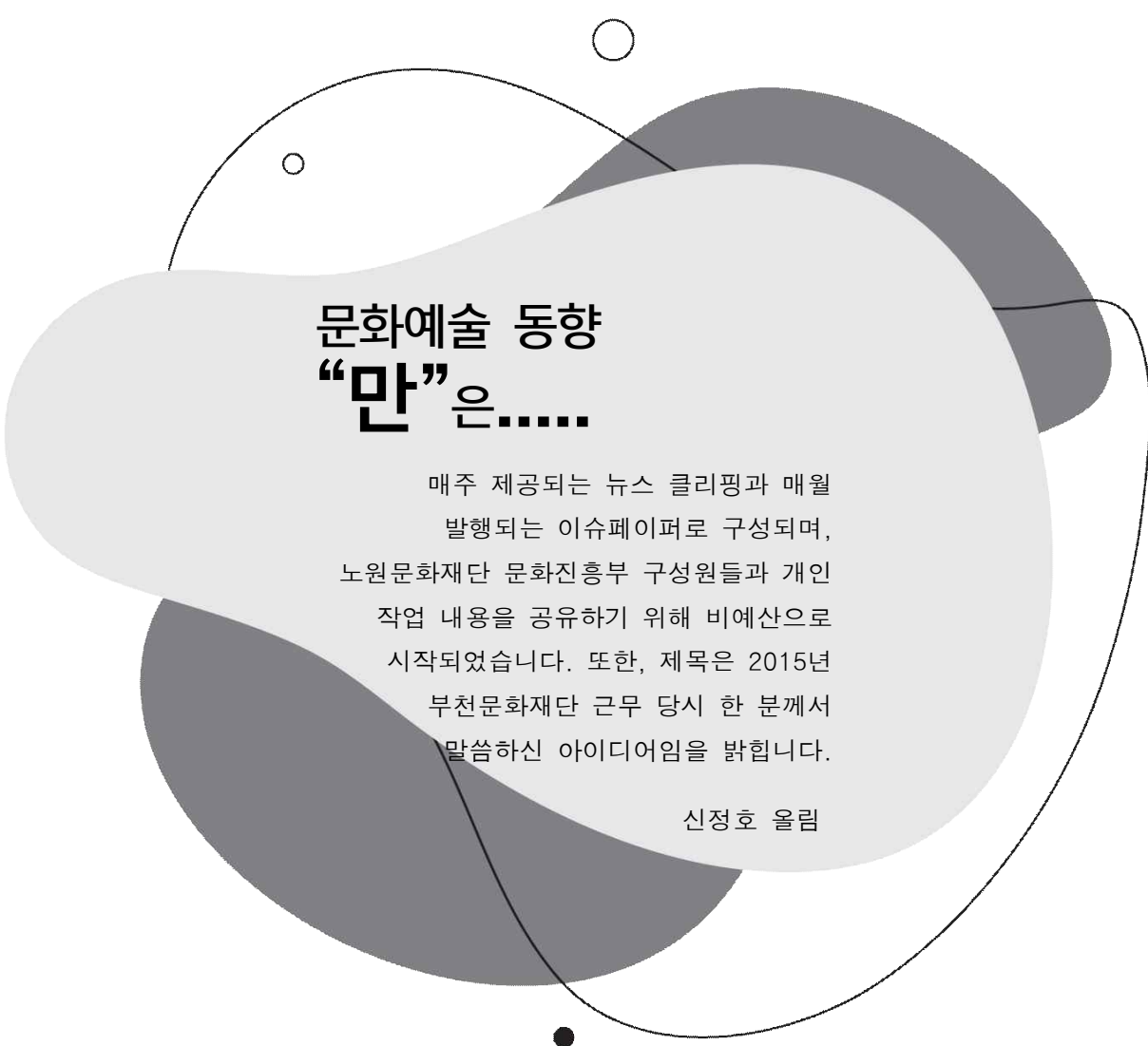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2025.12.08.

'만 시간의 법칙'을 의미하는 '10000(만)'의 News Clipping은
매주 문화예술 분야 주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0000



문화예술 동향 “만”은.....

매주 제공되는 뉴스 클리핑과 매월 발행되는 이슈페이퍼로 구성되며,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구성원들과 개인 작업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비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목은 2015년 부천문화재단 근무 당시 한 분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임을 밝힙니다.

신정호 올림

주요목차

(제39호) 예산 확대의 시대에서 생태 전환의 시대로	1
(제38호)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은 재정 구조 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4
(제37호) AI에 쫓긴 국가, 문화와 돌봄은 어디로 가는가	7
(제36호) 문화균형발전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점	10
(제35호) 균형 잃은 문화정책, 지속 가능한 문화국가로 가는 길을 다시 묻다 ·	13
(제34호) 균형과 지속가능성의 재정립	16
(제33호) 지역이 무너진 문화정책, 균형과 공정으로 다시 세워야	19
(제32호) 문화재정 긴축과 공공성 약화 속 문화 생태계 위기	22
(제31호) 재정·인구·문화 위기 속 지역성과 공동체 중심 문화정책·산업 혁신 필요 ·	25
(제30호) 한류 성과에도 지속성 위기, 격차·연대 부족 속 균형 문화정책 요구 ·	28
(제29호) 문화산업 확장 속 재정위기·운영 불투명·저작권 보호 등 지속가능성 과제	31
(제28호) 문화경제·사회 전반에서 경쟁력 강화 격차 해소·지속가능 발전·포용적 문화 확산 ·	34
(제27호) 정부 조직 개편·K컬처 확산·지역재생·AI·복지 강화 등 미래 대응 위한 정책 전환 본격화	37
(제26호) 지방문화 재정·제도 강화, K-컬처 확산·창작 지원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문화 추구 ·	40
(제25호) 한국 문화예술 정책과 산업 구조의 전환기	43
(제24호) K컬처 300조 목표는 재정·인프라 부족과 예술인 지원 미흡으로 공허한 구호될 위험	46
(제23호) 한류 성장과 문화산업 활황 속 사회통합·지속가능성 도전	49
(제22호) 문화권리 확대와 지역균형, 창작 생태계 전환을 위한 문화정책 재구조화 ····	52
(제21호) 한국 사회의 다층적 도전과 문화·도시 재생의 전환점	55

주요목차

(제20호) 문화예술기술 융합과 지역 활성화 속 예산 효율 공공성·지속가능성 강화 요구 증가.....	58
(제19호) 문화예술 예산 갈등과 사회문제 심화 속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문화 혁신 필요....	61
(제18호) 공공·문화·지역의 균형 발전과 포용사회 전환 위한 재정·제도 혁신 본격화....	64
(제17호) 재정 위기 속 지역소멸 대응과 문화 분권 실현 간 균형 과제.....	67
(제16호) 지역문화재단 확산 속 운영 투명성 강화 및 정부 정책 연계.....	70
(제15호) 사회적 포용과 지역 균형발전, 창의적 자립 기반 구축.....	73
(제14호) 기후위기·지역 균형·문화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모색.....	76
(제13호) 대선 문화정책 한계 속 경기침체·청년불안·고령사회·AI·문화재생 부각..	79
(제12호) 자립을 넘어 공동체 연립, 지역문화 확산과 공공문화 이슈 대두....	82
(제11호) 사회 변화 속 문화예술, 글로벌 진출과 지역 활성화 모색.....	85
(제10호)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문화 인프라 확충, AI·예술 융합을 통해 경제사회 구조 전환....	88
(제09호) 문화예산 감소, 인구 소멸 우려 속 공연·전시 해외 호평.....	90
(제08호) AI의 등장과 21대 대선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92
(제07호)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고 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방안 모색....	94
(제06호) 타겟플래이션 우려속 공연시장 성장, 국제미술시장 위축, 1인가구증대로 문화복지 고민 깊어지는 지자체 ㉞	
(제05호) 초개화AI 확산경제위기속에서 역할 재정립과 지속가능중심의 정책전환을 요구받는 문화예술계.....	99
(제04호)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교육예술 복지 강화와 공간 활용, 축제 예산 문제 등 논의....	101
(제03호)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문화재단, 신뢰와 지속가능성 자기 고민 필요....	103
(제02호) ‘문화변화’에 직면하게 있는 지역문화 예술계.....	105
(제01호) ‘문화한국 2035’ 발표 속 문화예술 자원 확대 및 제도 개편 추진 그러나 재정난으로 축제 중단 위기.....	107

(제39호) 예산 확대의 시대에서 생태 전환의 시대로

2026년 문체부 예산은 확대됐지만 지역 격차, 예술인 제도 취약, 대형 인프라 중심 정책의 한계, 창작 생태계 위축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지역 기반 회복, 예술인 삶의 질 보장, 콘텐츠·인력 중심 운영, 자율성과 다양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이제는 예산 규모보다 재정이 움직이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중앙-지역, 시설-사람, 단기-지속 가능한 생태로의 정책 재설계가 요구된다.

- K-컬처와 문화시설 확충에 투자하며, 예산 구조가 미래 전략 중심으로 재편
 - 문체부 2026년 예산 7조 8555억원 확정…K-컬처 가속(뉴스1 25.12.01.)
 - 문체부 26년 예산 7조 8,555억 원 중 2조 6,654억 원이 문화예술 분야에 배정되며, 전체의 약 34%를 차지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화·체육 분야 2026년도 예산안 심사…8.6% 증액(경남탐뉴스 25.12.01.)
 - 경남도의회 2026년 문화·체육 예산 2,963억 원 편성…전년 대비 234억(8.6%) 증액
- 도교에 집중된 지방세를 타 지역으로 재분배하는 정책 추진
 - 日당정, '지방세 도쿄 집중' 손본다…타지역 재배분 확대(연합뉴스 25.12.04.)
 - 일본 도쿄 집중 지방세를 지방으로 재분배 추진…도쿄 반발 예상
- 예술인 안전·복지·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
 - 화려한 K-무대 뒤…예술인도 안전모가 필요하다(한겨레 25.12.01.)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 23.5%, 인식 조사 찬성 79.5%…보험료 최대 90% 지원
 - 10년째 '유령 제도'였던 예술인 공제사업, 법제화 착수…임오경 의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발의(인천일보, 25.12.04.)
 - 10년 넘게 멈춰 있던 예술인 공제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
 - "불공정 계약 그만"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수료자 25만 명 넘었다(한국경제신문, 25.12.05.)
 -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누적 25만 명 돌파, 2025년 참여 역대 최다…계약·분쟁 대응 교육 강화 예정
- 공공 문화정책의 통제적 구조가 예비 예술인과 창작 생태계의 자율성 저해
 - 예비 예술인 대하는 서울문화재단의 고루한 시선(민들레, 25.12.03.)
 - '2026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 장르·학력·교수 확인으로 예비 예술인 통제 비판 제기
 - 예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태계 활성화' 프로젝트(ACTIO, 10호)
 - 공공예술 정책이 활성화 명분과 달리 위계·브랜딩으로 창작 자율성과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비판
- 지방의 취약한 소득·일자리 구조가 청년 유출과 소멸 위험을 심화하며 균형발전의 한계
 - "잘 벌면 지방 안 떠나" 청년 탈출 첫 통계 '반전'(KBS, 25.12.04.)
 - 23년 비수도권 청년 13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고, 소득이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23% 늘어
 - 20년간 균특 지원 이어져도 소멸위험 11곳…'균형발전 역설'의 최전선에 선 전북(전북일보, 25.12.04.)
 - 전북은 203조 투입에도 인구 185만→175만, 11곳 소멸위험·청년 5,800명 유출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
- 유희·노후 공간을 창의적으로 재생해 로컬 브랜드와 문화 관광을 키우는 도시전환 전략 확산
 - 옛 공무원 숙소가 핫한 문화 공간으로… '노점 도시'의 대변신(부산일보 25.12.04.)
 - 대만 타이중은 심계신촌 등 유희공간 재생, '노점 도시' 이미지를 벗고 감성 로컬 브랜드·문화관광 도시로 급부상
 - 노후 건물 NO! 빈티지 감성·독창성 살려 다양한 볼거리로 눈 호강(부산일보 25.12.04.)
 - 타이중은 옛 건물 재생, 프랜차이즈 배제한 독창적 상점, 상시 문화행사가 결합돼 로컬 브랜드로 성장
 - 부산시, 골칫덩이 빈집 공유숙박·창작공간 등으로 탈바꿈(연합뉴스 25.12.01.)
 - 부산시는 빈집을 숙박·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 정비·위험관리·상담체계로 종합 대응
- 골목·전통시장에 투자와 시민 참여를 결합해 지역 상권을 문화·창의 경제공간으로 전환

- 얼어붙은 골목상권 살린다...2030년까지 12조 투입(파이낸셜뉴스, 25.12.02.)
 - 2030년까지 골목상권에 총 **12조 1,459억 투자**·30개 구역 지정해 최대 100억 지원
 - 공주 골목에서 시작된 실험, 1억 매출의 비즈니스가 되다(파이낸셜뉴스, 25.12.02.)
 - 공주 원도심서 커뮤니티 디자인으로 **창업·협업 기반 구축, 매출 1억 비즈니스로 성장**
 - 용인특례시, '시장, 문화를 기획하다-시장투어 콘텐츠 해설가 과정' 마무리(매일타임즈, 25.12.05.)
 - 시민이 **전통시장의 가치를 발굴해 투어 콘텐츠를 제작하며** 시장을 문화공간으로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
- **고령·고립 위험이 주거환경에 집중되며, 개인 문제를 넘어 지역 기반의 구조적 대응 필요**
- 83.7세까지 사는 한국인... 생애 마지막 18.2년간 '골골'(서울신문 25.12.03.)
 - 한국인 기대수명 83.7세지만 건강수명 **65.5세로 감소해 마지막 18.2년은 유병 상태로 살아**
 - '고립 가구' 특정 동네·주거형태에 몰려...개인 문제 아니다(매일신문 25.12.03.)
 - 대구 고립은 **영구임대·원룸·노후주택·쪽방에 집중돼** 생활권 기반 대응이 요구됨
- **독서·문화관람이 영상 시청에 밀리며 중장년층과 지역 시민의 문화참여 격차가 심화**
- 50대 이상 절반, 1년 내 책 한 권도 안 읽었다(연합뉴스TV 25.12.01.)
 - **50대 이상 절반은 1년간 책을 안 읽음**. 영상 매체 영향, 독서 감소 심각
 - 부산시민 과반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 한 번도 못 해"(국제신문 25.12.05.)
 - 부산 시민 여가 70%가 영상 시청, **문화행사 관람률은 47%로 낮음**
- **지역 문화기반 확충이 본격화되며 미술관·공연장 등 핵심 인프라 구축 가속**
- '300만명 사는데...미술관 없는 우리 동네, K-미술 활성화 언제될까(머니투데이, 25.11.30.)
 - 인천 인구 300만명 넘지만 시립미술관 없음...내달 **2,415억 투입 복합문화시설 착공**
 - 아산 '예술의 전당'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Btv news, 25.12.03.)
 - 27~30년 **예술의전당 건립과 내년 창작마루·모종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문화인프라 확충 추진
- **대형 문화시설 확대 논의 속, 콘텐츠·인력 경쟁력과 재정 부담의 현실적 한계**
- "박물관·미술관 공존, 콘텐츠·인력이 핵심이다"(인천일보, 25.11.30.)
 - 인천뮤지엄파크, 건물보다 콘텐츠·인력이 핵심이며 정체성과 운영모델 재정립 필요
 - 부산시 "풍피듀 매년 75억 적자? 문화시설이라 당연"... 위험천만 '혈세 불감증'(우리일보, 25.12.04.)
 - 풍피듀 유치(2025) 추진에 연 **75억 적자·B/C 1.01 불안, 로열티 비공개 논란까지 '혈세 부담' 우려**
- **시설 확충만으론 한계...도시 지속성을 위해 체류형 문화전략과 청년 등 시민 참여가 중요**
- 수상공연장→국제비엔날레...소멸 위험 속 '머무는 도시' 되려는 대구 수성구 해법(노컷뉴스, 25.12.04.)
 - 인구 소멸 대응 위해 198억 문화도시 사업과 **수상공연장·비엔날레·아트뮤지엄 등으로 체류형 도시를 추진**
 - 하드웨어만 화려한 고양시, 로컬 재해석과 청년 활력 필요(고양신문 25.12.01.)
 - 청년문화 활성화 위해 로컬 재해석과 청년 참여·경험 기반 강화가 필요하며 **하드웨어 중심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보완**
- **지역문화 지속성은 정책·중간지원·공간 인프라 확충의 조화가 관건**
-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만들려면? "정책 연속성·중간 지원 조직 역할 관건"(매일신문, 25.11.30.)
 - 김천 15만·원주 41만 축제 성과 속 지역문화 지속 위해 **정책 연속성, 재단의 중간지원·민간 네트워크 강화가 핵심**
 - ② 예술이 머무는 공간, 섬문화예술플랫폼(신아일보 25.11.30.)
 - 원산도 섬문화예술플랫폼 **총사업비 300억 원 투입·대형 전시홀·소규모 갤러리 등 조성**
- **예술인 정주 기반 확충에 대한 지자체 관심 증가**
- 청주시, 문화제조창 일원 예술인마을 조성 '가속도'(충청타임즈 25.11.30.)

- 내덕동 문화제조창 인근 1만127㎡ 부지·사업비 189억 원 투입해 예술인마을 조성

○ 주민이 직접 만든 달성토성 골목정원, 10년 만에 지역 명소로 재생

- 10년 만에 100개 정원…대구 서구 달성토성 골목, 주민 손으로 다시 태어났다(영남일보, 25.12.04.)
 - 100가구 참여 골목정원이 연 2,700명 찾는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성장

○ 도시 문화전략 재편에 고민…정책·생태·공간 혁신으로 미래 문화도시 도약

- 예술도 정책도 진화 중, 부산이 준비하는 2026 문화의 미래(한국AI 부동산 신문, 25.12.02.)
 - 26년 문화정책 전환에 맞춰 생태 중심 전략 시민 참여·공공·민간 협력·기술융합을 통해 ‘문화플랫폼 도시’로 도약
- 춘천, 문화도시 2막 선연…‘춘천문화예술진흥계획’ 발표(강원일보, 2025. 12. 03.)
 - 춘천, 법정문화도시 이후 **의암호·예술제 중심으로 새 문화진흥계획 추진**

○ K-뮤지컬 시장 확장 속 양극화 심화…산업 구조의 근본 과제 부상

- 31억에서 244억으로…관 커진 K-뮤지컬, 차세대 킬러 콘텐츠 될까(데일리안, 25.12.06.)
 - 뮤지컬 예산 31억→244억(8배) 확대, K-뮤지컬 육성 전략 본격화…효율적 집행과 양극화 방지가 관건
- “작품성은 그대로인데”…배우 이름값에 널뛰는 흥행, 韓 뮤지컬의 민낯(데일리안, 25.12.05.)
 - 데스노트’는 스타 합류 후 매진으로 반전됐고, 20만 원대 티켓값이 스타 의존 구조를 고착

○ 미술·예술 생태계의 구조 전환…시장 재편과 AI 확산이 예술가 역할

- 세계 미술시장 재편 움직임…세컨더리 전문 갤러리 ‘PDS’ 출범(뉴시스, 25.12.05.)
 - 페이스·디도나·슈레이더가 2026년 뉴욕에 ‘PDS’ 출범, 세컨더리 시장 강화…한국 미술시장에도 영향 전망
- “생성형 AI 시대, 기획자로서 예술가 역할 중요”(경남도민일보, 25.12.05.)
 - 생성형 AI 확산 속 예술가는 창작자에서 기획·큐레이터로 역할이 전환

○ 문화재단 - 예술단 갈등 지속 상황에서 기획력과 운영 혁신 필요

- 오지연 의원 “하남문화재단, 공연 줄고 기획력 제자리”(뉴스프리존 25.12.01.)
 - 하남시립합창단 공연 2022년 4회→2024년 3회→2025년 1회로 급감…기획력·운영 혁신 시급

○ 대중문화 단체가 잇따라 생기지만 실효성 부족 우려

- 잇단 대중문화 예술 단체의 출현 ... 보여주기식은 곤란하다(더케이뉴스데일리 25.12.06.)
 - 대중문화 협의체가 잇달아 출범했으나,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으로 흐름 우려가 커 개선이 요구됨

○ 저탄소 콘서트 기준이 없어 전환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

- “위상 높아진 K-팝 ‘저탄소 콘서트’ 노력은 부족”(국민일보, 25.12.03.)
 - 국회 첫 ‘공연 탈탄소 전환’ 토론회 개최, 해외선 저탄소 투어 표준화·국내는 기준 부재

○ 계약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추진

- 인천문화재단,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도입(세계뉴스통신 25.12.01.)
 - 인천문화재단 계약서류 7종→1종 통합 서약서 도입…행정 부담·사회적 비용 절감

○ 지역 문화재단 인사 교체 본격화…문화정책 실행력·조직 안정성 주목

- 이종관 전 인천예총 회장, 인천문화재단 9대 대표이사로 내정”(인천일보, 25.12.03.)
 - 인천문화재단 9대 대표이사로 이종관 전 인천예총 회장이 내정
- 성동문화재단 3대 박봉주 이사장 취임...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성동저널, 25.12.04.)
 - 전 성동구청 국장·문화본부장 출신 박봉주, 성동문화재단 3대 이사장 취임